

#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김은주<sup>1)</sup> · 김근면<sup>2)</sup> · 최경원<sup>3)</sup> · 김상숙<sup>4)</sup> · 임지영<sup>5)</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정체감,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성정체성의 형성은 청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생물학적인 기준 뿐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인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전한다(Kim, 2000; Kim, 2011).

성정체성은 사회에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가를 말한다(Bem, 1975; Lee & Lee, 2009). 과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상반된 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은 어느 한 쪽의 성향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한 개인이 남성적 특성 및 여성적 특성을 함께 소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과 미분화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Jang, 2002; Kim & Ahn, 2008). 양성성 이론에 의하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개념은 일직선상의 양극에 존재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존재하는 공존의 개념이다(Jang, 2002).

이러한 양성성은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특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뛰어나게 된다. 양성성이 개인의 진로 발달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 연구에서 성정체감 중 양성성 유형과 남성성 유형의 학생들이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의 여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는 더 높고 스트레스는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성정체성이 한 사람의 인격형성과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Joyce & Diane, 1982; Oh, 2003; Park, 2009).

간호 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간호학과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학생 시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해결이 요구되며(Kim, 2012), 이 시기의 성정체성의 확립이 올바른 간호사상 확립과 학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의식은 성정체성과 더불어 성에 관한 주요 개념으로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다. 간호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여학생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평등 의식 또한 전문직관의 형성을 통해 직업 적응 부분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일반 대학생의 성희롱이나 성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Lee, Kim, & Choi, 2013).

주요어 : 대학생,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

-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3)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lim20712@inha.ac.kr)

투고일: 2014년 4월 22일 수정일: 2014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26일

특히 국내에서는 IMF 이후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간호학 분야에 남학생의 진학이 급증하고 있으며(KNA, 2007), 이러한 증가는 고취업률과 안정적인 보수, 소수 남성들의 빠른 승진에 대한 기대감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oughn, 2001).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성별 분업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성 위계질서는 해체될 것이며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평등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Subrahmanian, 2005).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들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자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롭다는 개인적 신념의 정도이다(Rosenburg, 196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진로 유형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은 수준은 개인의 진로와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Shim, 2013). 특히 대학생과 같은 시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때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핵심적 특성이 된다(Shim, 20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전통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된 직업관에서 탈피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성정체성의 확립과 더불어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전통적 여성성에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예비 간호사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자신의 감정표현 능력의 성장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성별 이외에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일반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수 선정은 G\*power 3.0.10을 활용하였으며 effect size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집단수 2(성별)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은 2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임의표출법에 의해 수도권 및 강원권에 위치한 총 4개의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00명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을 완성하고 회수된 설문지는 240부였으며 이중 검사문항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2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연구 도구

#### ● 성정체성

Kim (1987)이 사용한 Bem (1974)의 성정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간편 BSRI (Bem Sex Role Inventory)로서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 중성성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정체성의 유형은 중앙치 분리법에 의하여 여성성과 남성성 점수에 따라 피험자들을 양성성집단, 남성성집단, 여성성집단, 미분화집단인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대상자들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이용하여 남성성 중앙치 43점, 여성성 중앙치 48.5점을 모두 넘는 경우를 양성성유형, 남성성은 높으나 여성성이 낮은 경우는 남성성유형 여성성은 높으나 남성성이 낮은 집단은 여성성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앙치가 모두 낮은 경우는 미분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em (1974)의 개발 당시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여성성이 Cronbach's alpha .78, 남성성은 Cronbach's alpha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여성성, 남성성이 Cronbach's alpha .82, .89이었다.

#### ●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은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지(KGES)'를 이용

하였다(Kim & Jung,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남녀의 능력과 성격,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영역별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시 검증된 하위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가정생활에서 .91, 교육생활에서 .91, 사회·문화생활에서 .87, 직업생활에서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가정생활에서 Cronbach's alpha .74, 교육생활에서 .87, 사회·문화생활에서 .69, 직업생활에서 .84였다.

#### ● 자아존중감

이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S (Self-Esteem Scale)을 Ha (2006)가 수정·보완하여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ES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 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 (2006)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점에 대해 연구원으로부터 교육받은 보조연구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기록되며 설문을 작성하다가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 등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및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및 자아존중감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유형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01명(90.5%), 남성이 21명(9.5%)이었다. 연령은 19세 이하가 53명(23.9%), 20세가 69명(31.3%), 21세가 37명(16.7%)이었으며 25세 이상은 15명(6.8%)이었다. 학년은 1학년 67명(30.2%), 2학년 95명(42.8%), 3학년 24명(10.8%), 4학년 36명(16.2%)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1명(23.0%), 천주교가 24명(10.8%), 불교가 17명(7.7%),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28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는 16명(7.2%),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는 44명(19.8%),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62명(73.0%)으로 가장 많았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 결과, 성정체성은 성정체성 중 남성성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75, p=.001$ ), 특히 기독교와 카톨릭교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평등의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55, p=.015$ ), 3학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1학년과 4학년의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Table 2), 남성성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은 41.3( $\pm 6.9$ )점, 여학생의 평균은 43.4( $\pm 7.4$ )점으로 여학생이 높았으며, 여성성의 경우 역시 남학생의 평균은 47.2( $\pm 6.7$ )점, 여학생은 48.8( $\pm 6.8$ )점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또한 이를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4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여학생의 경우, 양성성이 55명(27.4%), 미분화가 53명(26.4%), 여성성이 48명(23.9%), 남성성이 45명(22.4%)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가 7명(33.3%), 여성성이 7명(33.3%), 남성성이 6명(28.6%), 양성성은 1명(4.8%)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평등의식은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평등의식 점수가

〈Table 1〉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Self esteem	
	Masculine		Feminine		Home		Education		Job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Grade	First	42.2(7.4)	48.6(6.0)	17.8(3.9)	15.6(4.8)	19.7(4.1)	16.1(4.8)	38.2(4.9) <sup>a</sup>		3.55
	Second	43.8(7.7)	48.5(6.9)	17.0(4.1)	14.9(4.4)	19.0(4.3)	15.4(5.0)	36.6(5.4)	0.61	(.015)
	Third	42.6(7.6)	47.5(8.3)	18.7(3.7)	15.8(4.4)	20.6(4.0)	16.7(4.3)	34.8(5.0) <sup>b</sup>	(.608)	a>b
	Forth	43.9(5.9)	50.2(7.2)	17.3(3.8)	14.8(4.1)	18.5(3.6)	16.3(4.7)	38.4(5.5) <sup>a</sup>		
Religion	Christian	40.7(7.0) <sup>a</sup>	49.0(6.7)	17.9(3.7)	15.5(4.5)	20.3(4.2)	16.5(5.0)	37.1(5.6)		
	Catholic	47.9(6.9) <sup>b</sup>	50.3(8.2)	16.9(4.5)	15.6(5.9)	20.1(4.7)	16.5(5.5)	36.1(5.6)	1.20	0.44
	Buddhism	42.6(6.6)	48.9(6.2)	17.6(4.7)	15.0(4.8)	18.7(3.5)	15.9(4.9)	37.0(5.6)	(.311)	(.773)
	None	43.5(7.3)	48.3(6.8)	17.3(3.9)	14.9(3.9)	18.9(4.1)	15.5(4.5)	37.4(5.2)		
Living	Dormitory	41.3(6.4)	49.4(5.9)	19.1(2.8)	16.6(5.8)	19.5(3.6)	17.5(5.2)	37.9(5.8)	1.03	0.38
	Lodging	43.7(6.9)	48.6(8.7)	17.1(3.9)	15.0(4.3)	19.2(3.7)	15.5(4.7)	37.6(5.5)	(.361)	(.687)
	Home	43.2(7.6)	48.6(6.4)	17.4(4.1)	15.0(4.3)	19.3(4.3)	15.8(4.8)	37.0(5.3)		

<Table 2> The Degree of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Variables		Male	Female	Male	Female	t or U( <i>p</i> )
		Mean(SD)	Mean(SD)	N(%)	N(%)	
Gender identity	Masculine	41.3(6.9)	43.4(7.4)			-1.24(.216)
	Feminine	47.2(6.7)	48.8(6.8)			-1.03(.306)
Type of gender identity	Androgynous			1(4.8)	55(27.4)	
	Masculine			6(28.6)	45(23.9)	-1.74(.082)
	Feminine			7(33.3)	48(22.4)	
	Undifferentiated			7(33.3)	53(26.4)	
Gender equality	Home	19.4(4.4)	17.3(3.9)			2.36(.109)
	Education	19.0(5.4)	14.8(4.2)			4.21(<.001)
	Sociocultural	21.1(4.5)	19.1(4.1)			2.09(.037)
	Job	19.8(5.4)	15.5(4.6)			4.06(<.001)
Self esteem		37.8(5.5)	37.1(5.3)			0.27(.602)

<Table 3>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Type of Gender identity

Variables		Androgynous	Masculine	Feminine	Undifferentiated	F( <i>p</i> )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equality	Home	16.9(3.8)	16.7(4.4)	18.2(4.2)	18.0(4.2)	2.06(.106)
	Education	14.1(4.0)	15.3(5.2)	15.5(4.1)	15.8(4.4)	1.64(.181)
	Sociocultural	18.7(4.3)	19.1(4.6)	19.9(3.9)	19.6(3.8)	0.88(.450)
	Job	14.4(4.0)	15.8(6.0)	16.6(4.3)	16.7(4.6)	2.96(.033)
Self esteem		39.9(4.5)b	37.8(5.6)	37.4(4.6)	34.0(4.9)a	14.6(<.001) a<b

높았다. 특히 교육영역( $t=2.09, p<.001$ )에서의 성평등의식과 직업생활영역( $t=4.06, p<.001$ )에서의 성평등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평균이 37.8( $\pm 5.5$ )점, 여학생의 평균이 37.1( $\pm 5.3$ )점으로 남학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 분석에서는 직업생활에 따른 성평등의식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96, p=.033$ ).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유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에서는 양성성유형에서 39.9( $\pm 4.5$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분화 집단은 34.0( $\pm 4.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4.6, p<.001$ ).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성평등의식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전문직 가치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간호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종교에 따른 남성성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기독교인보다 카톨릭교인들의 평균이 높았다. 성정체성과 종교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적다. Kwon, Kim, Ham, Gyo, Cho, et al. (2006)의 연구에서 중학교 남학생의 양성성이 종교에 따라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이 중 기독교인이 가장 높았으며 불교인, 카톨릭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외에는 남성성이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남성성이 갖는 정신 사회적 특성들과 함께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 외에 자아존중감은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Yoo, Kim, Hwang, & Ahn (2012)의 연구결과에서 역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학년별 차이가 있었으며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 및 교육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 평균 점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평균 점수가 모두 여학생이 높았다. Bakan (1966)은 남성성의 특성은 자기보호, 자기주장, 자기 확장, 독립성, 지

배성 등의 주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성은 접촉, 개방성, 결합, 독립성결여, 비계약적 협동 등의 상호 관계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남성성은 주로 목표 지향적이며 목적과 성취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며 여성성은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성정체성은 자신이 얼마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지녔다고 보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의 간호사는 여성성이 강한 직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성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은 순종적이며, 자기희생적이고 여성적인 경향들이 있다고 하였다(Davis, 1969; Yeaworth, 1976).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간호사들은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로 간호사는 자율성이나 자기주장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Biaggio & Nielsen, 1976). 실제로 간호대학의 여학생의 성정체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높은 남성성과 낮은 여성성(남성성유형)을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남성성과 낮은 여성성(미분화유형)을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20.9%로 가장 적었다. 또한 남성성유형의 학생은 자신들에 대해 주체적이며 분석적이라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쉽다고 평가하였다(Gauthier & Kjervik, 1982).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성유형보다는 양성성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는데 Bem (1975)은 양성성유형의 사람과 남성성유형인 사람은 사회적 압력에 덜 순응하였고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하였다. Park (200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정체성을 분류한 결과, 양성성유형(34%), 미분화유형(32.8%), 남성성유형(17.9%), 여성성유형(15.3%) 순서로 양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이 높은 순위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여학생 성정체성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im (2007)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정체성을 분류한 연구결과에서 미분화유형(33.7%), 양성성유형(32.7%) 순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반 여대생들의 성정체성 유형과는 다르게 간호대학의 여학생들의 양성성유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거치면서 그 사회 문화가 요구하는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을 습득한 결과 성역할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은 과거의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성역할보다는 한 개인 안에서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는 양성성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의 남학생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미분화유형(33.3%)과 여성성유형(33.3%)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분화유형(32.0%), 양성성유형(29.8%), 여성성유형(19.1%), 남성성 유형(19.1%) 순으로 나타난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연구 한 Lee (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간호대학의 남학생들은 남성성, 여성성 중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미분화 유형이 높았으며 이는 현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이지만 간호대학 남학생들의 성정체감은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남학생은 9.5%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간호학과와 남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이 많은 간호직업을 선택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적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평등의식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성평등의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평등의식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욱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Kim, & Jung, 1999; Yoo, Park, & You, 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 조사연구(An, Kim, & Kim, 2009)의 결과, 국내 직장생활 성평등 관련 내용을 보면 업무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주로 남성이 담당하였고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분리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직장일수록, 명확한 성평등 지침이 있는 기업일수록 성별분리가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특징으로 고려할 때,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자신들이 가진 양성성 성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성평등의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은 오히려 간호사 직업에 대해 보조업무보다는 주체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학의 특성상 대다수의 학생이 여학생이며 이들의 교육과정은 임상실습과 이론교과목의 과중으로 인해 성평등이나 성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교육은 물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그러나 한 사회의 전문직을 담당할 대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차이 중 직업생활에 따른 성평등의식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는 양성성유형이 여성성유형과 미분화유형보다 낮은 성평등의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양성성유형의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특성들과 대비되어 직업의 성평등의식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신의 성정체성은 주장적이면서 온정적이고, 도구적이면서 표현적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을 융통성있게 표현하는 건강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업적 업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평등의식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성유형은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미분화유형의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았다. Gauthier와 Kjervik (1982)의 간호대학의 여학생의 성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양성성유형보다 남성성유형의 자존감이 높았으며, 미분화유형보다 여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고 자존감은 학년이 진급할수록 상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외에도 성정체성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양성성유형이 미분화유형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실습 내용에서는 양성성유형이 여성성유형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이며 판단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자신이 유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Rosenbrg, 1965). 즉 양성성유형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양성성유형의 간호대학 여학생과 미분화유형이 많은 간호대학 남학생을 위한 간호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성평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문직관을 포함하는 간호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정체성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남학생이 자아존중감과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다수의 학생들이 성정체성이 미분화되어 있었으며 더불어 성평등의식이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정체성, 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추후 연구를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여성 중심의 직업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간호학 분야에 남학생의 지원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남자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남학생과 남자 간호사의 진출이 간호학 분야에서

성정체성에 혼란이나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볼 때, 적극적으로 남학생의 간호학과 입학 시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병원, 지역사회, 국가 및 지방 정부 정책 기관에 남자간호사의 진출을 육성하는 전략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양성 평등 관점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간호협회와 간호학회 등 간호계 리더 집단 차원의 적극적인 변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성평등의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보다 성평등의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남학생, 여학생 모두 사회문화영역에 대한 성평등의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반면 교육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설계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이다. 점차 간호학 내에 남학생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과중심 간호학 교과과정 내에서는 성역할, 성정체성, 성평등과 같은 양성 공존,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 지식과 술기술 그리고 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 못지 않게 양성 공존과 존중의 인식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조화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교육의 관점에서 간호학 교과과정 개편 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인식, 성태도, 성평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성정체성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도 직업 영역에서 성평등의식 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남자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 실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여겨져 온 관습이 간호조직에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양성 공존과 존중의 교육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와 같이 실무적 관점에서 향후 간호 실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남자 간호사가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여자 간호사와 동료 간호사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조직문화를 쇄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와 방안 모색이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n, S. S., Kim, Y. S., & Kim, K. M. (2009). *Public survey on the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and its barriers (1)*.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Bakke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62.
- Bem, S. L. (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iaggio, M. & Nielsen, E. (1976). Anxiety correlates of sex-role ident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619-623.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Davis, A. (1969). Self-concept, occupational role expectations, and occupational choice in nursing and social work. *Nursing Research*, 18(1), 55-59.
- Gauthier, J. & Kjervik, D. (1982).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n female graduate nursing students. *Sex Roles*, 8(1), 45-55.
- Ha, Y. J.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males and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Jang, K. M. (2002). Interactive influences of married female teachers' work-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sex-role identity on their job invol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3-41.
- Joyce, G. & Diane, K. (1982).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in female graduate nursing students. *Sex Roles*, 8(1) 45-55
- Kim, H. W. (2007). Relationships between sex role identit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remenstrual symptom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7(6), 1003-1012.
- Kim, J. S. (2000). The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9(2), 209-219.
- Kim, K. M. & Ahn, S. S. (2008). Integr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gender equality action intention of Korean 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33-144.
- Kim, K. M., & Choi, S. E. (2013).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40-50.
- Kim, M. K. (2012).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Family Stress, Negative Emotion and Suicide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Youth Culture Forum*, 29, 34-57.
- Kim, S. Y. (1987). *Relationships among sex-role identity, self-actualization, and morality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Kim, Y. G. (2011).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double standard, sexual subjectivity, sexual meaning on their sexual behaviors. *Youth Culture Forum*, 27, 8-37.
- Kim, Y. H., & Jung, K. A. (1999).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7). *The Annual Statistics*. Korean Nurses Association Policy Institute.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S. H. & Lee, E. J. (2009). The influenc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137-2151.
- Oh, Y. J. (2003). A study on the sex-role identity,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315-330.
- Park, B. S. (2009).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brahmanian, R. (2005).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5(4), 395-407.
- Shim, J. Y. (2013).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ttitude maturity, parental attachment, psychological separation,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of undergradu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eaworth, R. (1976). Women and nurse: evolving roles.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 7-9.
- Yoo, M. S., Park, J. W., & You, M. A.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16(1), 14-22.



##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im, Eun Joo<sup>1)</sup> · Kim, Geun Myun<sup>2)</sup> · Choi, Kyung-Won<sup>3)</sup> · Kim, Sang Suk<sup>4)</sup> · Lim, Ji Young<sup>5)</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jeong College

4) Assistant Professor, Red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5)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4 different nursing colleges. We measured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nd self-esteem using verified measurement tool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al methods. **Results:** Gender equali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had higher gender equality scores than female students on all 4 types of gender equality. **Conclusi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gender equality, especiall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future work should focus on developing a curriculum to increas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mong under graduate students, and thereby build an organizational culture of mutual respect for gender equality among clinical nurses.

Key words : Student, Gender Identity, Self Estee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Ji Young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210 Fax: 82-32-874-5880 E-mail: lim20712@inha.ac.kr